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8. 11. 14.(수) 총 4매(본문 2, 참고2)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자	• 과장 황 준, 사무관 임관창 • ☎ (051) 400-4120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차질없이 진행 중

-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內 최초로 3개 조석관측장비 설치 등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동재)은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빠른 유속과 넓은 사주*,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주) 하천에 의하여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과 해류에 의하여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한강(임진강)하구는 대략 3 ~ 7m에 이르는 높은 조차가 발생하는 해역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그 동안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요구되는 정확한 조석예측과 수심기준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남북은 그동안 공동수로측량과 동시에 공동이용수역에 조석관측*용 장비 설치를 진행하여, 1개월간 연속관측이 가능한 장비를 3개 지점에 성공적으로 설치하였다.

* (조석관측) 달, 태양 등의 기조력과 기압, 바람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현상을 연속 관측하는 것



조석관측을 통해 확보되는 조석자료는 수로측량자료의 조석 보정*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수심 결정을 지원하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의 예측자료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 (조석보정) 취득한 수심측량자료에서 조석성분을 제거하는 작업

11월 5일부터 시작한 남북 공동조사단의 수로측량은 당초 하루 4시간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기상악화, 조석으로 인한 바닷물 높이 변화 등으로 인해 11월 14일 현재 총 조사물량 660km 중 당초 계획(180km)보다 적은 164km 측량을 완료하였다.

다만, 일주일 동안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남북 공동조사단의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등 현장조사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수로측량을 진행하여 12월 11일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수역의 최초 조사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남북 수로전문가들이 함께 수로조사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최초로 실시되는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한강하구의 바닷길과 조석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져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항행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참고 1

현장조사 사진



